

지역 소식통

고창군, 개화 및 수확기 앞둔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고창군이 7월까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나선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전 시기에 맞춰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과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의 경작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약용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진달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또 잎은 분을 바른 듯 회청색을 띠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고,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또는 소유하다 적발 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 확인 시 1주(株)라도 예외 없이 입건되는 등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험물시설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신설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해 흡연이 금지되었다. 주요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일립포지 설치 등이다. 소철환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요소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가축 폭염 예방 선제적 대응

정읍시,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등 1억4200만원 투입

정읍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읍시는 도비와 시비 1억4,200만원을 투입해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폭염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한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등 폭염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더위에 약한 가축은 30도가 넘는 고온이 지속되면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면역력 약화 등으로 폐사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에 시는 도비와 시비 1억4,200만원을 투입해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폭염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한다.

가축사육환경 개선 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해 육성률을 높이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환풍기, 쿨링패드, 축사방망기, 안개분무기 등을 지원한다. 폭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사업은 가축 면역증강과 사료섭취를 증대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극대화하고자,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6월말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농가들을 적극 독려 및 지도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 MP 재수립 대응단, 추진상황 점검

부안군, 주요 건의사업 34건 발굴

부안군은 지난 17일 새만금 MP 재수립 대응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의사업(34건)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부안군은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1개 관련 부서로 대응단을 구성하고 새만금 MP 재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건의사업 34건을 발굴했다.

이번 회의는 최영두 부군수 주재하에 대응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발굴된 건의사업들에 대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추진상황에 대해 공유 및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부안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산단 확대, △관광데저 용지 공공주도 조성, △새만금 남북3축도로 시점 변경 및 신속추진, △새만금 3권역내 국제케이팝학교 반영,



부안군은 지난 17일 새만금 MP 재수립 대응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의사업(34건)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가력선작장 배후시설 및 연결도로 신설 등 주요 핵심사업이 부안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최영두 부안 부군수는 "부안군의 발전 전략을 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응단 및 관련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우리군의 협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에서 7가지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6월 한달간 고창 관광지 방문 인증샷을 찍어 개인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고창 농특산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고창에서 7가지 보물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

하는 '6월 여행가는 달' 사업과 협업하여 6월 동안 고창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 대상은 고창군민을 제외한 19세 이상 성인이며, 6월 한 달간 자유롭게 여행하며, 최소 1박 이상 숙박 후 고창군의 7가지 보물 중 3가지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벤트를 참가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g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중 조건을 충족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40팀을 선정하여 고창군 농특산품 선물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AI 맞춤형 방역관리 최우수상 수상

부안군, 전략지도 방안 평가서 선정했다.

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AI 맞춤형 방역관리(전략지도) 방안 발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23/24년 AI 맞춤형 방역관리(전략지도) 방안을 1차 각 시·도 서류평가 후, 부안군 모항해나루가족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 AI 방역 워크숍 - 민관 합동 AI 방역 결의 대회'에서 최종 전국 9개 시군의 발표 평가를 거쳐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부안군은 특히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및 긴급방역대책 구축" 등 가축방역체계가 타 시·군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방역관리를 위한 소독지원 관리에서 많은 점수를 받은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권오범 축산과장은 "농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생산자단체 등 방역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했기에 수상이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AI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9월 30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

정읍시보건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을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대표적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비브리오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다.

특히 하절기(5~9월)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병원체가 쉽게 증식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보건소 내 사업과 연계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 벗겨 먹기 △음식물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기 △끓인 물 마시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온다습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사례가 늘어남 것으로 예상된다"며 "2인 이상 동원한 음식물(음용수 포함) 섭취 후 설사나 구토 등 유사한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신청 서두르세요"

정읍시는 '2024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마감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2억원 규모로 시비 60%, 도비 40%를 부담해 농가당 연 1회 60만원씩 지원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오는 31일까지 서둘러 신청

을 해야 한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주소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는 정읍시(실제 거주)에 두고, 농지 1000㎡ 이상 경작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지급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마을이·통장의 협조를 얻어 마을방송 등으로 막바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8월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된 뒤 9월 중(추석전) 정읍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